

김산호 회화극본

The story of Holy Buddha

부처님

제29화 아힘사의 참회와 깨달음



바로 이때 아힘사의 두 눈이 번쩍 빛났다. 하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었는지 눈앞에 한명의 노파가 그의 앞으로 걸어오고 있었던 것이다.
“오오, 신이시여 감사하옵니다. 이로써 저는 길고 긴 고행수도를 끝마치고 최고의 깨달음을 얻게 되었나이다.”

아힘사는 몇 번이고 신에게 감사 하였다. 아힘사가 칼을 들어 노파에게 달려들었다. 그런데 어느새가 노파의 뒤를

따라오고 있는 또 한사람이 있었다. 그는 붓다였다. 붓다는 손을 들고 큰 목소리로 외쳤다.

“불쌍한 자여, 그 칼을 멈추고 내가 죽이려고 하는 노파의 얼굴을 보라. 그는 바로 네 어머니였다. 불쌍한 살인마는 듣거라. 너는 네 어머니마저 죽일 수 있겠는가. 너의 어머니는 네가 성안에서 미쳐 날뛰는 소문을 듣고 네가 걱정이 되어 이렇게 너를 찾아 나오신 것이다. 그래도 성도하기 위하여 죽일 것인가? 별책 정오가 되었으니 어서 결심을 하거라.”

“어 머니를 죽일 수 없으면 나를 베어보라. 사람들은 죽음에 두려워 너를 무서워 하지만, 나는 이미 죽음의 바다를 건넜으므로 너를 두려워하지 않는다. 너는 망상에 사로잡혀 함부로 사람을 해치며 그 결과로 해탈에 이르러자 한다. 그러나 최악의 결과로 해탈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은 이 시방세계에 없는 법이다. 나아말로 네가 오르려고 미친 짓을 하는 그 붓다의 자리에 올라선 사람이다.”

“오... 내 아들아! 사람들은 지금 너를 보고 ‘비사차’라고 부른다. 네가 왜 비사차인가. 세상이 다 몰라도 나는 네가 비사차가 아님을 알고 있다. 내 아들아 너는 더 이상 이 잔인한 살인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. 만약 꼭 하나의 손가락이 필요하면 내 이 손가락을 잘라 너의 소원을 이루도록 할 테니 제발 살인만은 그만 하도록 하라.”

※비사차 (Pisca) : 피를 빨고 고기를 먹는 귀신(食血肉鬼)이라는 뜻.

“내가 왜 비사차인가. 내 평생에 지렁이 한 마리도 죽인 일이 없었는데, 왜 나를 보고 비사차라고 한단 말인가. 지금 내가 죽이고 있는 자들은 이미 전생에서 포악한 죄를 짓고 온 악귀들인데, 사람들이 아무 것도 모르고 오해하고 있는 거야. 나는 이미 아흔 아홉 개의 손가락을 얻었고, 이제 한개만 더 구하면 목적이었던 ‘양갈리 마라(손가락 목걸이)’가 완성되면 서 나는 최고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된다. 자, 사문이어 울고 그들은 나중에 들어날 것이고, 지금은 그대의 손가락이 필요하니 손가락을 순순히 잘라 주든지 아니면 그 목숨까지 주든지 하라.”



드디어 칼을 차켜든 아힘사는 붓다에게 달려들었다. 그런데 어찌된 셈인지 붓다와의 거리는 좁힐 수가 없는 것이다. 아무리 달려가도 붓다와의 거리는 여전히 벌어져 있었다.

“아힘사야, 나는 아까부터 가만히 서 있었다. 내 마음은 남을 해치거나 미워하는 마음이 없기에 언제나 잔잔한 호수처럼 움직이지 않노라. 그러나 네 마음은 남을 죽이려는 생각으로 잠시도 쉬지 못하고 계속 뛰고 있는 것이다. 그래서 움직이는 나를 움직이지 않고 있다 하였고 너는 서있으면서도 뛰고 있었다고 한 것 이니라. 아힘사야, 너는 죽음과 공포 속에 홀로 서있는 것이다. 네가 만약 남을 죽이고 아라한이 되겠다는 아집을 버리면 생(生)도 죽음(死)도 너로부터 떠나게 할 수 있을텐데...”

“지금의 그 말씀... 아. 아. 내가 얼마나 찾아 헤메던 진리의 말씀인가. 그렇다면 지금 내 앞에 서있는 그대가 진정한 붓다 그분이란 말인가.”

“아힘사야 너는 이미 성인의 사람들에게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다.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잘못된 수도의 길을 바로잡아 올바른 법의 길을 찾고 정진하도록 하라. 백 명의 죄를 이기는 것보다 한사람 자신을 이기는 자야말로 최상의 전승자이다. 끊임없이 자기를 비우는 자에게는 제 아무리 강력한 신(神)도 이길 수 없는 것이다. 모든 사람은 폭력과 죽음을 두려워한다. 그런 사람들을 죽여도 안 되고 죽도록 시켜서도 안 된다. 승리자는 원망을 놓고 패배자는 원망하며 괴로움 속에 산다. 그러나 안정을 얻은 자는 승리와 패배를 버리고 편안함을 얻게 된다.”

붓다의 한 말씀 한 말씀에 아힘사의 감동은 깊어만 갔다. 아힘사는 지금까지의 수행생활을 통하여 깨닫지 못했던 새로운 법의 진리를 접하며 차츰 진리의 마음이 열려가고 있었다.

“저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죄인이 되었습니다. 이러한 죄인을 잡아 심판 하는것은 국왕의 의무입니다. 그러나 붓다께서는 이 죄인을 처벌하기 위하여 출동한 프라세나지 왕의 죄인 인도 요구를 끝끝내 거절하시고 저에게 진정한 다르마(法, Dhamma)를 깨칠 수 있는 자비를 베푸셨습니다.

왜 그리도 저를 보호하십니까? 차라리 저로 하여금 조금이라도 빨리 잡혀서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자비가 아닙니까?”

아힘사는 이 같은 피나는 노력의 결과 드디어 아라한(阿羅漢)의 경지에 오르게 되었다. 이렇게 하여 그는 불교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되었다.

“세존이시여, 이제 나는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의 칼날 앞에서도 그를 미워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았던 세존의 참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또 내 자신도 그럴 수 있게 되었나이다.”

“그러나 그것보다 더 어려운 일도 있다. 미운 마음도 괴로운 마음도 일으키지 않을 뿐더러 죽이려는 사람을 향하여 네가 바로 붓다라고 말할 수 있을 때는 너는 보살의 마음을 얻게 될 것이다”

그로부터 얼마 후 아힘사는 스스로 성인으로 나갔다가 분노한 사람들의 돌맹이와 몽둥이에 맞아 끝내 목숨을 잃고 말았다. 하지만 쓰러지는 그 순간까지도 그는 대항하지 않았고 숨이 끊긴 다음에도 그의 얼굴에는 얇은 미소가 머물러 있었다 한다.

